



S. D.

II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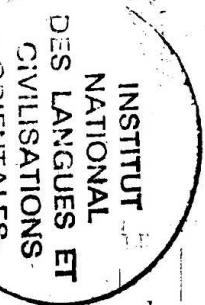
47.

1 COR. 1-553

# 북아리고지

조선국 국오리 이조감 외

DONS  
N°





복 음 대 지

복 음 의 촘 도 가 죠 선 에 나 온 지 여 러 히 가 못  
되 니 셔 율 에 레 비 당 이 멋 치 못 되 고 각 도 각  
음 에 도 전 흐 는 이 가 적 으나 날 마 다 공 경 흐  
야 듯 는 쟈 가 만 코 및 는 쟈 도 만 흐 니 깃 브 고  
반 갑 도 다 그 러 나 및 는 쟈 수 를 듯 는 쟈 수 에  
비 흐 면 만 치 아 니 흐 니 죠 흔 슬 프 도 다 나 는  
이 도 가 사 름 을 구 흐 야 촘 및 는 쟈 는 구 흔 을  
엇 고 및 지 아 닛 는 쟈 는 죄 를 뎁 흔 줄 을 아 는  
고 로 및 지 아 닛 는 이 흐 나 만 보 아 도 모 음 이

편치 못 흐나 그 러나 그 중에 가히 깃버 헤기  
손도를 듯는 이 중에 여호와를 공경하고  
예수를 촘Matt 어이 왕 그 큰 일을 뉘우고 곳친  
사람이 있서 저 금 그 사람됨을 이 왕에 비호  
면 크게 웃지 아니 흐니 실노 반갑도 다 쇠비  
루교에 드지 못 흐 엿시나이도 가 여호와  
의 촘도 그 줄은 알아 모음속에 맛으나 봉그  
로조당이 만하 능히 불이 예수를 알고 모  
음을 냉치 못 흐다가 여호와의 성령이 그  
모음을 감동케 흐샤 예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 흄이 사름을 스랑하고 두려워 흄에  
지난 후에 교에 드려 성도가 되여 이제 교중  
에 이런 사름이 만코노이도 롤밋으나 무식  
한 사람의 훠방호는 거슬루셔 워호야 문밖  
거서 고 촘아드려 오지 못호다 가후에 성령  
의 감화 흄을 밧아교에 드리무리에 초등한  
이가 되니 다 힝호며 놀깃본거 손지금은 와  
셔도 듯는 사름이 전파고지 아니호 야명벽  
히듯고 맛잇게 드르니 교당문을 열매 당에  
마득호고 듯고 회심호야오는 이의 계그듯

는 도의 뜻 술무르면 터답울이 왕보다 잘호  
니 여호와 석서 그 막힌 무음을 열여 주자  
도의 효진흔 것과 맛술석듯계 호심이로다  
대개사름이도를듯고도 능히붉이색듯지  
못하는고로 대강두어말을풀어인도호야  
사름마다 알기 가쉽게 코저흐노라우리가  
임의사름이 되엿시니 맛당이처음이여티  
로조차오며 맛춤이여티로조차감을알아  
맛당이엇더께내본분을다흘교나를조성  
하시고나를기르신이가었던 쥬직시며

나를 구호시고 죄악을 속호신이 가었던  
구주신고이 아래 문답에 이리치를 낫낫치  
붉이 말호 엿시니 모든 군즈들은 청진대 좀  
심호야 보기 를 봐라 노라

문 예 수교 중사름이 공경호고 절호는 신  
은엇던신이뇨

【답】

흘노호나히오둘히

업는총신 예호와시네이 예호와눈하  
늘도아니오짜도아니오신선도아니오부  
쳐도아니오보살도아니오우황도아니오  
원현도아니오협현도아니오수당에위호  
복음체리

는 여러 신도 아니니 이 헌디와 사흘과 만물  
의 큰 쥬적 시오 큰 썰 회 시오 큰 근본이 시오  
큰 근원이 시오 바지 못 흐는 거 시업고 농치  
못 흔거 시업고 계시지 아닌 곳이 업는 촘신  
이시니라

鄙 여호와 씨 셔몬 저계시뇨 혹 헌디가 모  
져 되 엇느뇨 困 집은 목슈가 잇손 연후에  
되 누나 헌디는 이 여호와 씨 셔몬 저계시  
나 존연이 여호와 씨 셔몬 저계시니라

鄙 헌디가 크뇨 여호와 씨 셔크시뇨

四

여호화 죄서 크시니 만드 물 뺏은 물건

이크나 장인이 크나 흥과 고도 다련디 눈문  
드 물 뺏은 물건이오 여호와는 만드신

주적 시니 헌디의 큼이 여호화 죄로 조차  
온거 시니 엇지 헌디의 큼은 알고 여호화  
의 큼은 모르는고 노 헌디는 거운이니 거운  
의 가보 않고 물아 우호로 쓴거 손하늘이 되  
고 거운이 무겁고 탁호 야아래로 어린거 손  
써 하되느니 여호화는 이신이 시오거운  
이 아니 신즉 헌디를 가히 여호화 죄비호

지 는 못 흘지 니 라

■ 련 디 를 가 히 공 경 흘 거 시 뇨 ■ 예

호 와 셰 서 련 디 를 조 성 호 샤 이 에 사 름 의 쓸  
거 술 삼 으 시 니 련 디 는 사 름 이 공 경 흘 거 시  
아 니 니 라 하 늘 을 든 드 샤 사 름 을 딥 흐 시 고  
쌰 흘 든 드 샤 사 름 을 실 으 시 고 날 과 돌 을 든  
드 샤 사 름 을 벳 최 시 고 만 물 을 든 드 샤 사 름  
을 기 름 시 고 복 을 누 리 게 흐 시 니 맛 당 이  
여 호 와 익 은 혜 를 감 샤 흐 는 기 손 촘 리 치 오  
든 드 신 쥬 는 닛 고 그 든 드 신 물 건 을 공 경

하고 절호는 거리치가 아니니 큰죄가 되느니라

**문**      여호와 우희는 무어시잇느뇨 **罔**      다  
    시업느니 본티다만      여호와 호나 만계시  
    고현디와 사롬과 물건이다업더니 후에  
    여호와 셙서현디와 사롬과 물건을잇스라  
    명호시매다느잇섯시니      여호와 우희는  
    도모지아모것도업느니라

**문**      여호와 셙서터로조차계시뇨 **罔**  
    여호와는 이영원이잇는      신이시니비로

슴도 업 수 시 고 못 촘도 업 수 샤 스 스로 계 진  
티 계 시 니 반 드 시      예 호 화 는 쫄 회 업 시 만  
물 의 쫄 회 를 조 성 흐 시 고 근 본 업 시 만 물 의  
근 본 을 조 성 흐 시 고 근 원 업 시 만 물 을 근 원  
을 조 성 흐 신 이 니 라

문      일 천 신 과 일 만 신 이 모 도 다 훈 신 이 라  
흐 니 엊 짐 이 높      문 맛 당 이 공 경 흐 고 절 훈  
신 은 다 만 훈      예 호 화 원 이 오 일 천 신 과 일  
만 신 이 업 수 니 죄 상 사 름 이 허 다 훈 헛 신 을  
위 흐 야 절 흐 는 거 시 이 크 게 미 런 흄 이 니 라

**문**

로 선과 풍신과 화신과 토신의 무리가

다 업느뇨

【

맛당이 알지로다 이 런여러

신은 도모지업고오직홀노흐나히시오  
둘  
히업는흔콘  
쥬적가우레와바롬파블파  
흙파스시에횡흐는빅물을다나게흐시고  
맞하다스리시니이벗거는다른신이도모  
지업느니라

**문**

신선과부쳐화보살의무리는무어시

뇨

【

사름의 눈으로보는바화상은흙으

로박아내고나모로삭인거시니본티사름

복음때미

록

의 화상이 오부처와 보살은 외국에 임의 죽  
은 넷사로 이오신 선은 중국에 넷사로 이 후  
허망홍을 빙조 흥내 더들이 다 사로를 구호  
고 해 흘권세가 업스니 더를 밟드려 신이라  
하야 망령 되이제 스호고 절호는 거시 어티  
쓰리오더를 공경호면 큰죄를 예호와 쇄  
엇느니라

문호 예호와 쇄 죽히련상디하와바다  
와 모든 물건을 맛하다 스리시느뇨

المت

여호와는 아지못호 시는거시업스시고 능

치 못 호시는 거 시업스 시고 계시지 아닌 곳  
이업스신 신이시니 사람의 계는 비치 못  
흘기시오 여호화 쇠셔 만물을 임의 조성  
호심을 성각호면 맛하다스리기가 무여시  
어려오리오 만물을 내셔도 그 힘을 번거이  
아니호시고 만물을 다스려도 그로록호심  
이업느니라

예호화를 뵈옵지 못하고 엇지 예호  
화계심을 알며 공경호리오이거시아득호  
야성각지못흘일이아니뇨

예호화

칠

예호화

의 조성훈현디와사름파물건을보면가히  
여호화계심을절노알지니사름이보지못  
호는연고는여호화석션령호샤얼꼴  
도업스시고형상도업스심이니비록뵈옵  
지못호나계시지아닌곳이업느니라너니  
말호되머리를들어석조에올나가면신명  
이잇다호나능히보았느니비록네말의신  
명이허령호고형상이업다호나그러나임  
의이말이잇스니신의형상업스심을능히  
알거시니비록보지못호여도도모지보지

못 흠으로는 빛지 아니치 못 헤지니 라 공조  
1월 으 터 신을 제 소 흠 매신이 있는 드 시 훈  
다 흠 니 능히 보았느 냐 이 신이 예 호화는  
아니 오 귀신이니 귀신의 계제 소 흠이 크게  
여 호화의 촘도를 어찌나 이 말을 궁구 흠면  
뇨 훈신도의 형상 업슴을 짜르침이 아니 냐  
므릇 공경 흠는 거 손반 드 시 잇다 괴 흠 야 공  
경 흠이니 사름이 제 소 흠는 귀신은 다 촘신  
이 아니니 맛탕이 제 소 아나 훌거 시니 더 귀  
신은 실상 예 호화가 아니니라 제 소 흠 괴

절호는 일이다 사름의 무임으로 성각호야  
냄이니 그릇 흠이 심호도 다 증세히 중구호  
면 예호와 셙셔반드시 계심을 알거시니  
불가불경비흘거시오 노흔잇는것곳치만  
알셨아니라 촘계신 줄노 알지니라

문 예호와를 헌부라닐그롬온무슴뜻  
이뇨  **المت** 예호와 셙셔사름의 근본됨을  
마르치고노 예호와 셙셔사름스랑호기  
를아비가조식스랑흐긋치호시고사름마  
다 예호와 셙 힘닙지아닛는이가업는지

라 여호와의 기름과 소랑 흄을 넘는 고로  
아비라닐 쿠느니 련부를 세상 아비 제비  
흐면지극히 높호시고 지극히 크시도 다술  
그다 여호와 쇄비록 보련하의 아비가  
되시나 그 효조된 자는 적고 예수를 믿어  
성령의 감화 흄을 엊어 보야 흐로 능히 조식  
의 믿음이 나는 자는 여호와의 종 아들이  
되느니라 신약에 널은 바와 콧치 예수를  
믿는자는 여호와의 아들이 되는 권을 준  
다 호셨시니 이 혈귀로 말미암도 아니하고

정 육 으 로 말 미 암 도 아 니 흐 고 사 름 의 쫓 스  
로 말 미 암 도 아 니 흐 고 이 예 호 와 로 말 미  
암 앗 는 니 라

문 촘 신 이 삼 위 일 텨 라 흐 니 무 슴 쫓 시 노  
alam 촘 신 여 호 와 는 오 직 흐 나 히 시 나 는  
호 면 셋 시 되 고 합 흐 면 흐 나 히 되 는 니 이 삼  
위 는 성 부 와 성 증 와 성 령 을 널 쿠 룸  
이 니 라

문 예 수 는 이 멋 재 위 시 높 문 삼 위 일 텨  
중 데 이 위 성 증 1 시 니 라

문 예 수 두 글 즈는 무 슘 뜻 시 놠 ount 유다  
국 말 노 흐 면 곳 셰 상을 구 호 신 자 丨 란 뜻 시  
니 라

문 예 수 의 성과 태 가 잇 더 흐 시 놀 ount 유다

예 수 셰 두 가 지 성과 태 가 잇 소 니 흐 나 흐  
여 호 화 의 성과 태 가 잇 고 흐 나 흐 사 름 의 성  
과 태 가 잇 소 니 두 성과 두 태 를 합 흐 야 흐 나  
히 되 야 예 수 丨 라 날 쿠 르 나 도 모 지 예  
수 는 삼 위 일 태 중 데 이 위 성 즈 丨 시 니 셰  
상 에 는 려 사 름 의 몸 을 일 위 셰 상 사 름 을 구

속 호 시 니 라

문 엇 더 케 강 싱 호 시 러

【 장 싱 호 신 쌔

흔 곳 유다 국 이 오 그 쌔 는 곳 한 나라 평 데 원  
시 원 년 이 오 그 모 친 은 곳 동 정 녀 마 리 아 |  
니 셰 상 모 친 은 잇 셔 도 셰 상 부 친 은 업 소 시  
고 예 수 가 나 서 기 도 인 도 는 베 셔 나 선 고  
로 거 륙 호 샤 죄 악 이 온 전 이 업 는 니 라

문 예 수 가 엇 턴 일 을 힝 호 샤 사 름 을 구 호  
셨 는 러 固 호 나 혼 즈 거 가 몸 으로 예 호

화의 형상업수 신분성과 본체를 가져나타  
내여 사품으로 흥여 곰보게 호시고 예수  
는곳 여호화의 데이위시니 '여호화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치 시오세상에 누려사  
름이 되자 사품으로 흥여 곰 예호화를 두  
려위 공경하고 열복제호신지라 예수를  
뵈오면 곳 여호화를 뵈옴이 오소 예호  
화는 만물의 쐐희 만들뿐아니라 노흔만덕  
과 만복의 쐐희가 되시니 사품이 예호화  
를여나면 그덕이 반드시 쇠호야마치 가지

가 원 나 모 를 써 나 면 진 익 이 동 치 못 흐 야 그  
가 지 가 반 드 시 므 름 웃 흐 니 사 름 이 력 을 닉  
고 져 흘 진 대 결 단 코      써 호 와 를 써 나 지 못  
흐 거 시 니 라      예 수 가 사 름 구 속 흐 기 를 위  
흐 야 장 싱 흐 샤 즈 괴 몸 으로      써 호 와 의 영  
광 을 나 타 내 여 사 름 의 계 뵈 써 흐 써 꼼      현  
부 로 더 보 려 능 하 다 시 친 흐 야 써 그 력 을 일  
우 게 흐 시 니 사 름 구 속 흐 심 이 요 긴 훈 일 이  
오 흐 나 혼      써 호 와 의 촘 도로 사 름 의 계 전  
흐 시 니 세 상 사 름 이 다 캄. 캄 흐 고 어 듭 더 니

사 룸 을 구 속 호 샤 헨 샹 의 빛 츠 로 빛 최 시 니  
라 후 이 날 으 턱 유 도 와 불 도 와 선 도 세 교 는  
노 흔 예 호 와 의 도 가 아 니 누 그 도 가 무 어  
시 부 족 흠 이 있 는 누 터 답 흠 되 세 교 는 사 룸  
의 무 음 으로 조 차 낸 거 신 주 어 거 예 짐 이 만  
코 노 그 가 온 대 춤 리 치 가 있 슬 지 라 도 족 히  
지 극 지 못 흠 고 노 임 의 사 룸 의 계 로 조 차 왓  
시 니 그 말 이 권 이 업 는 거 시 오 예 호 와 쇄  
서 친 히 전 흠 신 도 라 야 조 꼴 도 어 거 예 짐 이  
업 고 지 극 히 족 흠 야 권 이 있 는 누 이 는 다

예수 가일 우신 거시 오사 룸 구호 기에 요 긴  
흔일 이니 라호 나흔십 증가 에서 죽으샤 사  
룸의 죄를 티신 속호 신지라 사룸마다 다 죄  
가잇서 죄를 면치 못호 고구 흠을 엇지 못호  
느니 죄를 속호는 큰일은 사룸이 능히 못 훔  
거신 고로 여호와의 아들이 장성호 께티  
신속죄호 시니 사룸구호 기에 대옥요 긴호  
일이니라

**문**      예수 1죽은후에 엊지호 뇨      **분묘**  
가온대장스흔지삼일에 다시살으샤 소심

일을 지나 하늘에 올나련 상파디 하의 모든  
권을 잡으시고도 예수가 하늘에 계셔 사  
롭 구속하신 일을 다스리는 고로 멋는 자는  
다만 예수께서 이세상 든닐 땐만 주께  
의탁을 뿐 아니라 강성호 사죄를 턱신면 케  
하시고 다시 살까지 금지된다 스리  
시니 이제서 지혜마다 주의 큰 능이 모든  
죄를 벼셔 나게 하고 거룩함을 일우게 흐심  
을 생각해야 믿음에 죄잇음을 셔듯거든  
쥬색 곳 치심을 보라고 믿음에 더러운 거술

복음 대지

십삼

서 듯 거든 쥬 쇄 셋 소심을 브 라고 평안 치  
안 거든 주 쇄 위로 흐 심을 브 라고 불지 못  
흐 거든 쥬 쇄 빗 최심을 브 라고 덕에 해 롬  
게 흘거 시 잇 거든 쥬 의 힘으로 이 거 예 주  
심을 브 라고 모 든 만 소를 다 능 치 못 흔 거 시  
업 는 구 주 예 수를 차 자 흘 지 니 라

문 성령 은 누 구 시뇨 門 성령 은 여  
호 와 삼 위 일 태 중 데 삼 위 시니 사 름 의 모 음  
을 빛 최 여 감 화 케 흐 느 니 셰 상 사 름 이 다 죄  
잇 손 죽 무 음에 맛 당 이 증 거 의 죄 잇 숨 을 알

아뉘 웃고 흔 흐 야 브라 고 착 흐거스로 꽃 치  
고 저 흘 진 대 반 드 시 예 수 익 일 흄을 익 락  
흐 야 헌 부 쇠 성 령을 보내 여 그 드 읍을 감  
화 케 흐 시 기 를 구 흐여 야 가 흐 니 라 성 령  
은 곳 촘 리 치 익 성 령 이 시 니 촘 리 치 를 전  
흐 는 자 는 반 드 시 성 령 이 드 음에 계 시 기  
를 구 흐 야 벳 죄 여 감 화 흄을 엊 어 야 전 흐 기  
를 불 게 흐 고 쇠 권 쇠 와 력 량 이 엊 서 촘 리 치  
를 듯 는 자 도 성 령 익 감 화 흄을 구 흐여 야  
듯 기 를 불 게 흐 야 도 익 맛 술 쇠 드 라 복 종 흐

야 촘 예 호 와 계 심 을 아 는 니 라 예 호 와  
는 삼 위 일 텨 시 니 성 부 와 성 증 와 성  
령 이 시 라 만 물 이 다 예 호 와 를 힘 납 어 헛  
고 만 복 이 다 예 호 와 로 조 차 오 고 만 죄 가  
다 구 후 흠 을 인 흠 야 면 흠 고 만 덕 이 다 예  
호 와 를 익 지 흠 야 니 러 나 고 죄 인 이 구 흠 을  
헛 는 것 도 다 예 호 와 익 은 혜 로 말 미 암 는  
니 증 거 힘 은 릴 쇳 만 치 도 멧 을 거 시 업 고 증  
거 공 으로 는 결 단 코 의 락 흘 기 시 업 는 니 라  
사 름 익 흘 기 순 뉘 웃 쳐 곳 치 고 구 쥬 예 수

둘 빛 눈 거시나 정성의 마음으로 뉘우쳐  
곳 치고 독실이 예수를 빛 어야 성령의 감  
화 흄을 엊는 니라

**呂** 사름이 구 흄을 엊으랴 헐진 대 엊지 공  
부가 업스리 오념 경호 고지 를 직회 고적 덕  
흐는 일이다 올 흄나 **雷**네가 십분 혁 이분

은 아는 도다 사름이 혁 호화 암회 잇서 셔  
는다 죄인이라 본분을 다직 회지 못 흄 엿신  
즉 공덕을 절단코 앗치 못 흄 엿시니 넘경과  
직직 회는 거시다 쓸티 업술 쑰 아니오 회 미

흔길이니 라 도 혼나 모는 도 혼 실과 가 및 는  
니 내 가 착 혼 일을 흉 흉 면 도 혼 사 름 이 되 는  
거 손 몬 죄      여 호 화 쇠 서 내 죄 를 면 흉 여 주  
시 고 내 모 음 이 감 화 혼 후 에 착 흄 을 흉 는 거  
손 즈 연 이 그 린 거 시 내 이 는 즈 거 공 부 도 아  
니 오 즈 거 공 로 도 아 니 라 실 노      여 호 화  
성 령 이 내 모 음 에 잊 서 야 도 혼 혈 미 가 및 는  
니 영 광 올 다 맛 당 이      여 호 화 쇠 로 틀 녘 보  
낼 지 니 라

四

여 호 화 를 공 경 흘 쌔 향 과 초 불 과 도 회

화 불과 세가지 회성으로 제스호는 레가 있  
느뇨 **昏**다 올 치 아니 흐니 맛당이 예호  
화는 성령으로 알아 공경 흐고 절 흐는 이  
가 무음과 정성으로 요긴 흄을 삼을 거 시오  
공경 흐고 절 흐는 일은 흔마티 말노다 흐기  
가 어립도 다 만일 즈세히 알고 져 흄 진대 각  
교당에 가서 교스의 계붉이 무리 알고 쇠적  
력에 성일과 방일과 허일과 묘일이 베 날은  
곳 레비 흐는 날이니 교당에 와서 레비 흄을  
보고 거룩한 구를 뉏일 지니라

**문**      예 호 와 를 공 경 희 고      예 수 를 밋 어 성  
교 에 드 러 오 면 무 슴 유 익 훈 거 시 잇 는 뇨  
**咎**      유 익 훈 거 시 그 장 크 니 죄 를 반 드 시 면 희  
고 악 을 반 드 시 화 희 고 살 아 서 뜻 훈 사 름 이  
되 야 믳 음 이 평 안 희 고 죽 어 셔 지 극 히 보 베  
로 온 령 혼 을 구 희 야 헌 당 익 영 원 훈 복 을 누  
리 는 니 라

**문**      교 를 빙 즈 희 고 싱 애 희 는 일 이 잇 는 뇨  
**咎**      이 교 에 들 면 교 를 빙 즈 희 고 싱 애 희 는  
거 시 아 니 라 도 롤 및 는 자 는 이 도 와 익 로 서

로 사고는 니 엇지 직리로 리왕호리오도를  
도 모호족을 코크꽃출도 모호족 그르니의  
를 날오는 자는 군즈요리를 날오는 자는 쇼  
인이니라 링조 11월오는 턱공경과 대부는 사  
롭의 벼술이 오인의 충신을 도화호야 게얼  
네 아니 흄은 하늘의 벼술이라 흄니 사롭의  
벼술노엇지 능히 하늘벼술에 비호리오사  
롭의 벼술은 구호다 가엇는 자가 적으되  
예수를 조차 정성으로 하늘벼술을 구호는  
자는 엊지 못호는 자가 업스니 하늘벼술을

복음대지

십칠

구호는 자는 너니 쾌쾌히 올거시오 실망치  
말지니 라만 일교를 빙자호고 싱명을 위호  
는자는 만명을 구호여도 가히 오지 아니호  
거시오 후에는 욕심을 일우지 못호고 교를  
비반호야 스스로 큰죄를 쥐호는거시오 만  
일도를 위호야 혼죽 흉상 능히도를 즐겨호  
고죽기에 너르러도 변치아니호야 살아서  
는여호화의 아들이되고 죽여서는 영성  
호는현당에셔 영원이 살거시니 각각 맛당  
이 힘쓸지어다나는 날마다 브라노라

## 도고문

능치못한바—I 업스신 여호와는현디와  
만물을조성흐신 쥬—I 시라나—I 이제이  
글을보오니 여호와는홀노흐나히시오  
둘히업는씀 쥬직심을아느이다진정으  
로원흐건대이제브더후로는일절망녕된  
일을브리고 쥬를향흐야경비흐리이다  
뇨내가죄를범흐 고악을짓는사람인줄을  
아느니날마다올치아닌말과올치아닌일  
과올치아닌성각과 장도치못한거손모

음이 간샤하고 바르지 못 흠이라 내죄를 의  
론 흐면 맛당이 디혹에 셜러 짐을 밧을 거시  
오노내공이 죄를 속 훌수업고 주거 몸이 죽  
은 후에 영벌을 면치 못 훌줄을 아는 이다

현부색서세상사름을 불상이 넉이 샤

수를 주샤십조가상에 죽으샤우리죄인을

구속호섯시니이제브라건대 현부는

구주의공로를보샤우리만가지죄를샤호

야주시고우리령흔을구호야주시고

령을주샤내모음을바르게호시고내게잇

는 바 악한 성각을 셋서 브리게 흐시고 나를  
도 아성실이 웃뉘쳐 투치게 흐쇼셔 노날노  
흐여 꼼죽는티 나고 사는티 드러와 성교에  
성도가 되엇소 오니 흥상선을 힝하고 감히  
악을 흐지 말게 흐샤죽은후에 나를 잇그려  
하늘에 올나영원이 춤복을 누리제 흐쇼셔  
도여 호와 익은혜를 구흐느니 내제 친흔벗  
술주샤보련하여 러사름이 흔가지도 쥬  
예수를 멋여 여호와 죽복종 흐고자 극히  
보비로 온령 혼울구 흐제 흐쇼셔 유히 구흐

는 거 손 예수의 공로를 온전이 의지해야  
여호와께 치락하시기 때 뵈라 누이다

멘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ASIANALES

복음 대지 종 찬성 정동 예수교회 담간인

212